

## 제24대 수원 총학 출범식

### 19일, 집행부소개 및 총노선 결의 본격적 사업 시작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19일 체육과학대학에서 제24대 출범식을 개최한다.

3월 총선에서 민주세력의 승리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실천방안 모색과 총학생회 총노선에 대한 학생들의 인준절차가 있게 된다.

최만식(경영·4) 총학생회장은 이번 출범식의 의의에 대해 "에년의 출범식이 학생회간부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반성, 올해는 학우들 스스로 준비하고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도록 해 대중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부에서는 확대운영위원회 소개와 김봉걸(공대·화공) 수원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이전 총학생회장 어머니 남들의 내빈인사가 있으며 모의 총선 2차유세와 투표, 동아리들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총학생회는 17일 외국어대학에서 제3대 발대식을 갖는다.

하복녀(리사어·1) 여학생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발대식 1부에서는 단과대와 과 학생부장 등 집행부 소개 및 주경희(원예·4) 총여학생회장의 출범선언문 낭독이 있게 된다.

또한 총선과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가 진행되며 노래패의 공연 및 교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전공관련 도서기증 서정범교수등 6백여권 전달

서정범(문리대·국문)교수는 국문학 관련서적 5백여권을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다.

또한 지난 방학중 대한교육협의회는 교육관련서적 50권을 기증하였으며 지난 11일 박양원 건의의료원이 의학관련서적 60권을 중앙도서관 사서과에 기증하였다.

**체대 수영장 개방**  
체육대학 교무과는 지난 16일부터 수영장을 개방하였다.

본교 재학생에 한해 개방되는 수영장은 평일은 오후5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정오부터 오후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2만원의 입장료를 체육대학 교무과에 납부하면 된다.

**시청각교육원 TIME특강**  
시청각교육원에서는 오는 23일부터 6월5일까지 TIME해설특강을 실시한다.

정경대 111강의실에서 오후5시 10분부터 실시된다.

**불법 개인사물함 수거 중앙도서관, 폐기처분키로**

중앙도서관 사서과는 열람실의 개인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실내에 설치되었던 불법개인 사물함을 오는 20일까지 수거한다.

수거된 물품들은 도서관 수위실에 비치해 두며 20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 수원 등록금협상 본격화

### 교육부 항의방문 투쟁도 전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부터 18일 과총회기간까지 교육재정확보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안을 수립하고 그동안 준비사안들을 총화하여 오는 19일경 본격적인 등록금 협상에 들어 갈 예정이다.

지난 11일 실무자 회담에서 91년 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양측 입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재단전입금과 대학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것을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이어 12일에는 의대 앞 민주광장에서 3월총선 승리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대대적 발족식을 가졌다.

또한 총학생회는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과 공동으로 오늘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제3차 교육부 항의방문투쟁을 전개한다.

이외에도 총학생회는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유인물과 스티커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재단이 등록금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기동(영고·4) 학자주 사무국장은 "우리 학생대표들이 할 일

**본교생 63% "투표하겠다"**

3·24 총선 설문조사 결과

각단대별 분포를 보면 문리대(14.0%), 법대(0.7%), 정경대(12.4%), 사법대(4.9%), 가정대(8.0%), 한의대(4.1%), 치대(2.9%), 약대(3.2%), 체대(9.5%), 외국어대(6.3%), 사회과학대(16.6%), 자연과학대(5.1%), 공과대(0.5%), 산업대(0.2%), 외국어대(6.3%), 2학년(34.1%), 3학년(23.9%), 4학년(22.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14대 총선때 투표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비율이 14.4%로 나타났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11.5%로 각각 나타났다. 투표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람도 5.4%나 나타났다.

이로써 본교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투표할 만한 인물이 없기때문에 8.0%, 정치인 사들의 도덕적 타락성 5.9%, 투표해 보았지만 '회의'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때문에 6.8% 등

### 인물의 도덕성과 참신함 우선

대다수 공명선거에 의구심

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2%가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하지않겠다 14.4% '그때의 상황에 따라' 11.5%로 각각 나타났다. 투표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람도 5.4%나 나타났다.

이로써 본교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투표할 만한 인물이 없기때문에 8.0%, 정치인 사들의 도덕적 타락성 5.9%, 투표해 보았지만 '회의'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때문에 6.8% 등

### 교양교재 일괄판매 개선돼야

▼개강과 함께 캠퍼스 곳곳에는 신입생들의 생기발랄함과 선배들의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어울려져 한층 봄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다.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짐작컨대 생활에 있어서의 파격적 자유획득을 즐기는 동시에 학문에 있어서는 기존교육의 연장선상에 자신이 있음을 문득 느끼고 있을 것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신입생 교양교재 일괄판매에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학문선택에 역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신입생들은 등록금 납부시 학교측이 선정된 교양교재를 일괄 구매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 국어, 영어, 대학체육, 국사등의 교양교재에 대해 자신의 선택의지는 상관없이 출판국에서 배부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출판국의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입생들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이에 총학생회는 이번 달 안으로 전 대학교재에 대한 환불 공고를 내고 교양과목개편이 이루어지는 내년에 자유구매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아직까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령 그것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학내의 모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참으로 힘들다. 그렇다면 바로 선배들과 학교측은 대 학교교육의 정상화만을 소리높여 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더구나 문제가 신입생들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학교육이 진정으로 학문적 연구기능에 좀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무수한 말들이 오고 갔다. 결론은 대학교육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전달형태에서 벗어나 교수, 학생이 함께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물론 전공관련부분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양과목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스스로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분위기는 조성은 대학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 의료원 '감마나이프' 시술

수술후 부작용적어 호응기대

경희의료원은 지난 28일부터 최첨단 의료기구인 '감마나이프'를 이용, 신경외과 부문 환자를 치료중이다.

감마나이프는 절개하지 않고 두개내 병소를 치료하는 최첨단 장비로써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스웨덴의 렉셀회사로부터 장비를 수입해 지난 28일 가동하여 지금까지 5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수술후 24시간 이내에 퇴원이 가능

### 사 고

#### 제 41기 수습기자 모집

17일 오후6시 원서마감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대학주보가 92학년도를 이끌어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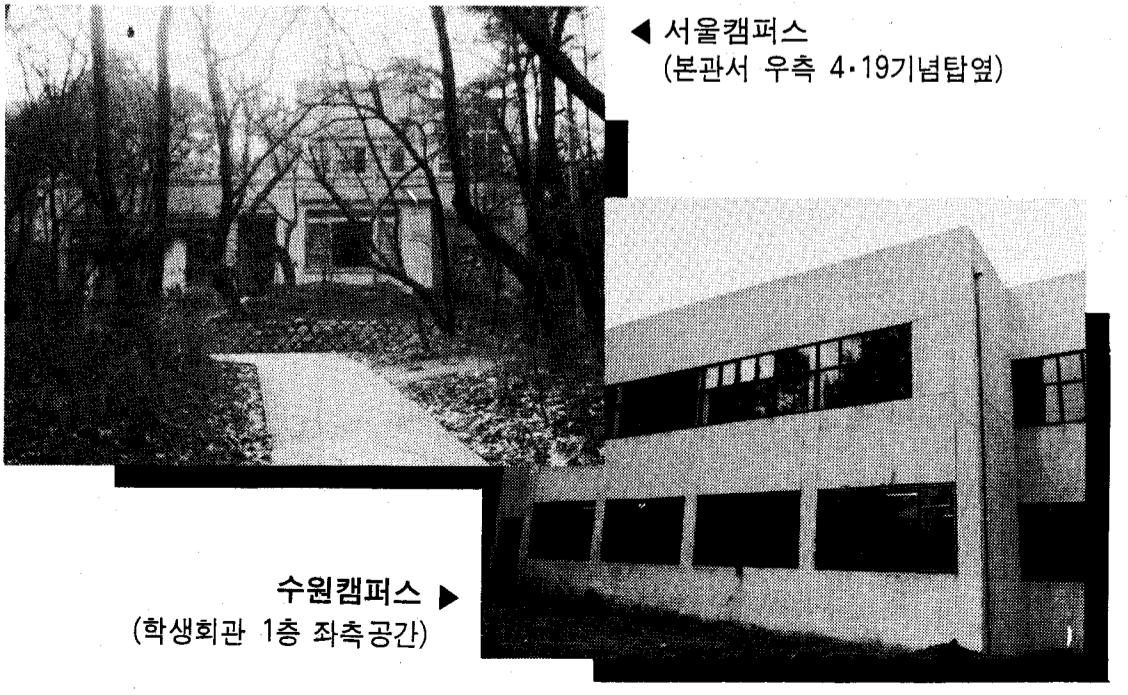
▲대상: 양캠퍼스 신입생  
▲모집부문: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기자, 컷(만화)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기자, 사진기자

▲선발방법 및 일정  
1)시험절차: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2)시험일시  
·서울캠퍼스: 1992.3.17(화) 오후6시  
·수원캠퍼스: 1992.3.18(수) 오후6시  
3)시험장소: 양캠퍼스 편집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편집실(구내전화 2056)  
▲원서접수 마감: 3월17일 오후6시까지

**대학주보사**

### 수습기자 모집 광고 ①

## "도깍이 소굴"



서울캠퍼스 (본관서 우측 4·19기념탑 옆)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1층 좌측공간)

어느때부터인가 대학주보사 기자들 '도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있는곳, 그곳이 도깍이 소굴입니다

### 수습기자모집

대학주보사는 1955년 5월12일 '신흥대학보'로 창간. 1960년 3월25일 지령100호를 발간하면서 '경희대학주보'로 제호 변경을 한후 다시 동년 6월30일 106호부터 '대학주보'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5월11일에는 지령1,000호를 맞게 됩니다.

### 모 집

- 원서접수기간: 1992.3.2(월)~3.17(화)
- 원서접수마감: 1992.3.17(화) 오후6시
- 원서접수처: 서울캠퍼스 신문방송국내 대학주보편집실(연락처: 교내전화0095), 수원캠퍼스: 학생회관내 대학주보편집실(연락처: 교내전화2056)
- 모집부문: 일반기자, 사진기자, 컷·만화기자
- 모집대상: 1992학년도 신입생
- 시험일시: 서울캠퍼스: 1992.3.17(화) 오후6시, 수원캠퍼스: 1992.3.18(수) 오후6시
- 시험장소: 양 캠퍼스 편집실
- 시험절차: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편집실로 연락 바랍니다.